

우치동물원 파충류관 리모델링 완료

기존 식물원에 총 사업비 26억원 투입...내년 3월 개장 계획

서식환경 고려한 호랑이·사자사 생태숲 조성공사도 마무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광주 우치동물원 파충류관.

광주 우치동물원이 파충류관을 리모델링하고 호랑이와 사자사 등의 생태숲 조성을 마무리했다.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기존 식물원을 리모델링해 동물과

식물이 함께하는 전시공간으로 거듭난 파충류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충류관은 총사업비 26억원(국비 10억원, 시비16억원)을 들여 연

면적 1126㎡ 규모로 지었다. 아나콘다 등 총 21종 44마리의 파충류와 32종, 598주의 식물을 전시한다. 파충류관은 악어와 거북이를 개방형으로 전시해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동물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은 시운전과 동물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3월부터 개장할 계획이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랑이·사자사에 생태숲 조성도 마무리했다. 생태숲은 전나무를 비롯한 수목 1249주와 구절초 등 초화류 1만 6251본을 심어 동물들이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 그늘집을 설치해 동물들에

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복지를 고려해 조성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2017년부터 해양동물사, 표범사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새로운 동물사들이 속속 준공하고 있다.

넓은 보행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해 시민들의 관람환경을 대폭 개선하면서 본격적으로 생태동물원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앞으로 무플론사와 소맹수사를 리모델링해 더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동물사로 탈바꿈시키고 큰 물새장의 관람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임진택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넓은 시설 등 관람객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폭 시설 투자를 통해 생태동물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며 "동물종류나 규모면에서 국내 동물원 가운데 세 번째 정도로 새롭게 바뀐 만큼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온 힘"

광주 동구가 정부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진예비를 이어가고 있다.

동구는 28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4분기 자치분권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제도 △주민참여 △자치재정 등 3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 동구형 주민자치회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치분권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구, 내 일을 잡(Job)이라 참여기업 모집

광주 서구가 오는 12월 17일까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이라!'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이라!'는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청년에게 적합한 사업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1월중 청년 구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기업과 매칭데이를 추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남구, 관내 결혼 중개업 등록업체 7곳 점검

광주 남구는 결혼 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해 관내 결혼 중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에 등록된 결혼 중개업체는 총 7곳으로 파악되며, 남구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북구, 주거복지사업 대통령상 등 2관왕

광주 북구가 올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며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2월 9일에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기관부문 종합대상을 잇따라 수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자체·공공기관의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포상하며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주관하는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롭다한 주거복지문화를 실천하는 기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해 주거복지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광산구, 행안부 2019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28일 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로 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상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의 안전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광산구의 프로젝트는, 민선7기 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안전대진단, 생활안전신고 등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를 시민 스스로 진단·해소하는 사업이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선관위, 21대 총선 입후보 안내설명회

12월9일부터 이틀간 지역 선관위 9곳에서 실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12월 9일부터 이틀간 9개 선거구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번 설명회는 12월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 실무 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

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을 안내한다.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선관위의 단속방침 등 기타 정당·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선거사무와 선거비용,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사무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

광주2순환路 친환경차량 통행료 내년 12월까지 감면 연장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신봉우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